

칼빈의 주석에 나타난 선교사상

최 정 만

(선교신학, 조교수)

I. 서 론

칼빈의 폭넓은 신학사상이 인류역사에 미친 엄청난 영향력을 여러 시각에서 연구함에 있어서, 그의 선교 사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소평가되어 왔거나 부정적 시각에서 평가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¹⁾ 선교의 과업수행이 교회의 본질적 생명력에 속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부패하고 거짓된 죽은 교회를 바르고 참된 교회, 생명력이 살아 있는 교회로 개혁하고자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선교운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의 사상 가운데 교회의 선교적 과업 수행을 위한 선교사상(thought toward the

1) J. Van den Berg, "Calvin and Missions," *John Calvin, Contemporary Prophet* (Grand Rapids: B. B. H. 1959) p. 167. "When we believe, as we do, that the fulfillment of the missionary task belongs to the essence of the life of the Church, it is evident that we would consider it a serious on mission if a work dealing with the influence of the Genevan Reformer in the broad field of Christian thought and activity, the relationship between Calvin and the work of missions would not have received special attention.

missionary task of the church)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아니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고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제약으로서 이 분야에 대한 자료의 절대빈곤이다.²⁾

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드라투르(Pierre Inbart de La Tour)와 더불어 칼빈의 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 강요** 하나면 만족한 것으로 믿어 오던 때가 있었다.³⁾

그후에 사람들은 칼빈의 주석서들이 칼빈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임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칼빈의 신학 체계는 철저히 성경에 기초를 둔 신학 체계이며 성경을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칼빈이기에 이 성경 말씀의 주해를 통해서 그의 신학 체계가 완성되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물론 칼빈의 신학을 조직신학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의 방대한 성경주석은 **기독교 강요**를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루이스 구마즈(Louis Goumaz)는 “성경주석가로서의 칼빈을 충분히 이해 하지 않고서는 종교 개혁자 칼빈을 이해 했다고 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⁴⁾ 그런데 이 칼빈사상의 연구를 위해서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될 것 같다. 칼빈이 남긴 방대한 작품들 가운데 물론 첫 번째 꼽아야 할 것은 **기독교 강요**요, 그 다음은 그의 성경 주석이라 할 수 있으나 종교개혁자 칼빈의 위대성은 역시 설교가로서의 칼빈에게 있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논문을 써 내려 가고자 한다. 더구나 그의 엄청난 설교의 양과 제네바(Geneva)

2) 전호진, **한국교회와 선교** 참조.

3) *Calvin et l'Institution Chrétienne Paris*, 1935, p. 55. 참조. 남부 프랑스의 님르(Nîmes) 출신 역사학자, 신학자, 목사, 변증가인 에밀 두베르그(Ernie Doumergu: 1844~1937)의 *Le Caractere de Calvin*. 제 2판, p. 104에서 칼빈의 비평가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예정론이 편협하고 폐쇄된 집단을 만들어 왔으며,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전파와 선교를 금지해 왔다”고 했다.

4) Louis Goumaz, *La doctrine du salut d'après les Commentaires de Jean Calvin Sur le Nouveau Testament*, Lausanne et Paris, 1917, p. 8, 참조.

시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서구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준 그의 설교의 질적 위대성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자세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필자는 감히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사상을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다.⁵⁾ 그러나 지면의 제약때문에 본고에서는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선교사상은 다음기회에 발표하기로 하고 초고의 흐름 가운데서 이 부분은 잘라내어 따로 보관해 둘 것이다.

II. 종교개혁과 칼빈의 선교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칼빈에게는 선교사상이 없다고하나, 칼빈의 예정론, 구원론, 교회론은 선교 저해적 교리체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문제의 제기에서부터 본 연구의 모티브(Motive)가 시작되는 것이다.

근대 선교신학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루터교 선교학자 구스타프 바르넥(Gustav Warneck)⁶⁾ 교수는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선교정신이 결여 되었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를 로마 카

5) Emile Doumergue, *Calvin, le Prédicateur de Genève*, s. d., p. 9와 Rodolphe Peter, “Jean Calvin Prédicateur” in *Revue d'histoire et de philosophie religieuses*, Paris, 1972, pp. 111-112. 참조(이들 외에도 Richard Stauffer 교수와도 이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6) Gustav Warneck, *Das Studium der Mission auf der Universität*(**대학에서의 선교 연구**, 1877), *Moderne Mission und Kultur*(**현대선교와 문화**, 1879), *Die Gegenseitigen Beziehungen Zwischen der modernen Mission und kultur, Abriss einer Geschichte der Protestantischen Mission*, (**현대선교와 문화의 상호관계, 개신교 선교 역사, 1882-1910**), *Welche Pflichten legen uns unsere Kolonien auf*(**식민지에 대한 우리의 책임**, 1885), *Evangelische Missionlehre*(**복음주의 선교학**, 1895-1903) 등 선교학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연구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선교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데 서구적 역할과 공헌을 한 학자였다. 그에 대한 복음주의적 선교신학 사상에 대해서는 Johannes Verkuyl(최정만 역), **현대 선교신학 개론**, p. 51을 참조.

톨릭과의 교리논쟁에 탈진하여 선교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또한 로마 카톨릭이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세력을 업고 해외 선교 지역을 넓혀갈 때 종교개혁 세력은 유럽 내에서 이방세계와의 접촉기회가 없었고, 로마 카톨릭 국가들로 부터 지리적으로 둘러 쌓여 있는 형세였기 때문이며 또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사도 계승 교리에 대한⁷⁾ 지나친 반동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내용이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적인 해석을 하고있는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선교사상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성경해석의 결과에서 나온것이라 볼 수 있다.

예일대학교의 선교역사 학자인 케넬 스코트 라토렛 교수는 그의 명저, **기독교 확장사**(*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에서, "16세기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외선교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유럽이외의 지역에서는 신앙전파의 노력이 전무했으며, 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의 투쟁으로 선교에 힘쓸 여유가 없었고 종말이 가까와 복음이 이미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고 믿었고, 종교개혁 지도자들에게 선교사상이 결여되어있었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우수한 선교기관인 수도원이 있었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선교수행기관이 없었고, 비기독교 세계와의 접촉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선교가 뒤떨어졌다."라고 썼다.⁸⁾ 샤무엘 즈웬머(Samuel

7)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황이 사도직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 보다 상위의 권위임을 주장하므로써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자행되어 온 것을 생각할 때, 개혁자들은 이에 대한 반대로 사도직의 단회성과 불연속성을 강조하다보니,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도 사도들에게만 국한시킨 신학적 실수를 범했다고하나 칼빈을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칼빈이 성경해석상 실수한 것이 아니고 칼빈 연구자들이 칼빈사상을 오해한 것이다. 후에 본문에서 전개되지만 칼빈에게는 선교의 비전과 열정이 있었다. 다만 당시 시대 상황이 칼빈으로 하여금 마음껏 선교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8) Ke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stianity*, Vol. III. (Grand Rapids: Zondervan, 1974), pp. 25-28.

M. Zwemer)는 오늘의 신학(*Theology Today*)지에 기고한 그의 글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사가인 요셉 슈미들린(Joseph Schmidlin)이 “종교 개혁가들 곧 루터, 쾰링거, 멜랑흐톤, 칼빈에게는 선교의 사상도 없었고 선교의 활동도 보여주지 못했다(Reformers, Luther, Zwingli, Melanchthon, and Calvin were not conscious of the missionary idea and displayed no missionary activity)”는 말을 인용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의 선교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또한 튀빙겐(Tübingen)의 신학자 슬라터(Schlatter) 교수가 1909년 **복음주의 선교 잡지**(*Evangelische Mission Magazin*)(Vol. 53)에 기고한 “칼빈과 선교”(Kalvin und die Mission)이라는 글과 보훔(Bochum)의 에른스트 피스테러(Ernst Pfisterer) 교수가 1934년 **일반선교시대지**(*Die Allgemeine Missionszeit Schrift*)에 기고한 “칼빈의 선교사상”(Der Missionsgedanke bei Calvin)이라는 글에서 두 교수는 “칼빈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교회의 선교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⁹⁾

슈미들린은 위의 전제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제시한다. 하나는 브라질에 있는 프랑스의 이민들에 대한 선교는 차라리 식민지 확장의 모험에 불과했고 다른 하나는 스칸디나비아 북단의 랍스(Lapps) 사람들 가운데 구스타프 바사(Gustav Wasa)를 보냈는데 그곳은 순수한 이교도 지역이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¹⁰⁾

선교역사 학자인 스티븐 닐(Stephen Neill)은 그의 명저 **기독교 선교역사**(*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에서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

9) Samuel M Zwemer, “Cavinism and the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VIII,(1950), pp. 206-216. This has been clearly shown by two German Scholars in articles that appeared in 1909 and 1934. …Both of these writers agree that Calvin recognized the missionary obligation of the church both in theory and practice.

10) *Ibid.* “That of Gustav Wasa among the Lapps was not really to pagans and that of the French emigrants in Brazil was merely colonizing venture.”

톨릭 교회의 로베르 벨라르망(Robert Bellarmine 추기경의 말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단자들(종교 개혁자들: 필자주)은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로마 카톨릭 교도들: 필자주)만 유인하였다... 비록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그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폴란드 헝가리에는 터키인들이 이웃하여 살고 있지만 신교도들은 이들중 몇몇 소수의 주위 사람도 개종시키지 않았다."¹¹⁾

개신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칼브라텐은 **종교개혁사문집**(Archiv für Reformations Geschichte Vol.44)에 기고한 "종교개혁과 선교"(Reformation und Mission)이라는 그의 글에서, 개신교회(Protestant Church)에는 선교사상이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종교개혁자 루터 자신도 선교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선교명령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신학에서의 선교부재는 필연적 귀결이며, 루터의 종말론 사상은 기독교 국가 밖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16~17세기의 루터교의 조직신학자인 베르너엘러트(Werner Elert) 교수는 그의 명저 **루터교의 구조**(*The Structure of Lutheranism*)에서 독일 선교학 연구 사례를 자세히 열거하면서¹²⁾ 루터는 바르네크의

11) Stephen Neill,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5), p. 221.

12) J. Ferd. Fenger, *Gesch. d. Trankebarschen Mission*, (translated from the Danish by Franke), 1845.

R. Bückmann, *Die Stellung d. luth. Kirche des 16. und 17. Jahrh. Zur Heidenmission U. d. gemeinsamen Bestrebungen von Leibniz U. A. H. Fromke Zu ihrer Belebung*, *Zeitschr. f. Kirchl. Wiss. U. Kirchl. Leb.*, 1881, pp.362ff.

G. Plüt, O. Hardeland, *Gesch. d. luth. Mission*, 2d ed., 1894-95.

P. Drews, "Die Anschauungen reformatorischer Theologen über die Heidenmission," *Zeitschrift. Prankt. Theologie*, 1897, pp 1ff.

W. Grossel, *Die Mission und die evang. Kirche im 17. Jahrh.* 1897, Joseph Pindor, *Die evang. Kirche Kroaten-Slavoniens in d. Vergangenheit U. Gegenwart*, 1902.

지적과 같이 “우리들의 말로 표현해서 선교의 사람”(Missionsmann in Unserm Sinne)은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선교회를 조직한다든지 코르테즈(Cortez)와 함께 멕시코에 간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자신이 선교학 교수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개혁이 모든 것의 개혁인 것처럼 그 자신을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또한 루터에게서는 선교의 활동(Missionstat)만 없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상(Missionsgedanke) 조차도 없다고 했다.¹³⁾ 베르너엘러트(Werner Elert)는 복음의 능력과 우주적 목적(the omnipotence and the universal teleology)에 대해서는 믿고 있으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선교 목적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루터를 심하게 비판하였다.¹⁴⁾

“루터와 초기 루터 교회에서는 복음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루터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선교의 우주적 목적을 간과하거나 의심하면서, 시편, 선지서, 바울서신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었는가?”¹⁵⁾ 골로새서 1:23, 마가복음

G. Warneck, *Abriss einer Gesch. der protestantischen Mission*, 10th ed, 1913.

E. Mürtz, *Die ev. Mission in ihrer Gesch. U. Eigenart*, 1917.

Franz Rud. Merkel, *G. W. V. Leibniz U. die China-Mission*, 1920.

Heinr. Frick, *Die evang. Mission, Ursprung, Geschichte, Ziel*, 1922.

Karl Holl, "Luther und der Mission" *Ges. Aufg.* III., 234ff.

E. Strasser, *Die Taufe in d. Gesch. d. deutschen ev.-luth. Mission*, 1925.

Jul. Richter, *Ev. Missions Kunde*, 2d ed., 1927.

Mart. Richter, *Der Missionsgedanke in ev. Deutschland d. 18 Jahrh.*, 1928.

Friedr. Langenfass, *Von der Reformation Zur Mission, in Missionspraxis in der Heimat*, 1930.

13) Werner Elert, *The Structure of Lutheranism*, St. Louis: Concordia Pub. House, 1962. p. 385. "Indeed, as Gustav Warneck Pointed out, Luther was not a man of missions in our sense of the word,"(Missionsmann in Unserm Sinne). The poor man! instead of founding a missionary society, accompanying Cortez to Mexico, at least assuring for himself a professorship of missionary science, he devoted himself, of all things, to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In him Warneck misses not only "missionary activity"(Missionstat) but also "the idea of missions"(Missionsgedanke).

14) *Ibid.*, p. 385-386.

16:15를 해석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세상 한쪽 구석에 두어서는 안되며 지구 전체를 가득채워야 한다”고 결론지었다.¹⁵⁾

“시편 117편에서는 복음과 세례는 전세계를 관통해야만 한다”(das Evangelium und die Tauffe Müssen durch die gantze welt komen)고 했고, 또 학개 2장에서는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값진 보화가 될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두 세 민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전세계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Nicht Zwey Odder Drey Volk, Sonderndie Ganze Welt).¹⁷⁾

베르너 엘러트(Wernet Elert)는 복음에는 반드시 세계 선교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루터가 성경해석 과정에서 해설하면서도 그 선교적 의미가 선교적 의무 내지는 선교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함과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왕국(The Kingdom of The Christ)의 확장 신학이나, 선택자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신학 이론은 루터보다는 더 강한 선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칼빈 역시 “이 의미를 선교적 의무(The missionary obligation)로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윌리엄 R. 호그(William R. Hogg)는 주장하면서 “칼빈의 주석이나 기독교 강요에도 적극적인 선교신학은 없다. ……이교도들의 개종을 바라고 비기독교 세계에 살고있는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보인 흔적은 여기저기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종교개혁자들에게는 교회의 선교적 차원에서의 선교이해가 없었다”¹⁸⁾고 했다.

15) *Ibid.*, p. 386. There is no further need to speak about Luther's and early Lutheranism's belief in the omnipotence of the Gospel. And how could Luther, Who expounded the Psalms, the Prophets, and Paul have overlooked, or doubted the universal purpose of the mission of the christ and His Gospel?

16) From Col 1:23 and Mark 16:15 he concludes that Gospel is not to be kept in a corner but should fill the whole globe.

17) WA(Wearmar Edition of Luther's Work) 31I, 339, 18ff.: 285, 9ff.: 232, 29;

본고에서는, 그러면 과연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에서 호그(Hogg)와 위에 열거한 많은 부정적 측면에서 비판해온 비판자들의 말대로 칼빈의 사상 가운데 선교신학의 부재(不在)라는 주장에 동의할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주석을 더 연구해서 칼빈의 선교 이해, 선교사상 선교신학을 향한 새로운 가치체계의 수립을 필요로 하며 선교의 개념 정립에도 크게 공헌하리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현대선교의 동기가 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신학부재의 행동 곧 인간의 경건, 인간적 운동이라고 보는 폰발터홀스텐(Von Walter Holsten)¹⁹⁾과 같이 종교개혁과 선교의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현대선교의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논할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현대선교를 논해야 할 것”²⁰⁾ 주장한 것처럼, 필자는 “현대 선교신학의 안경으로 칼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칼빈의 안경으로서 현대선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이겠는가 하는 시각에서 본고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칼빈이야말로 개신교 선교의 튼튼한 기초를 수립한 자로서 새롭게 재평가하게 되었다. 선교적 주제하에서 바울과 칼빈을 비교 연구 해 본 결과 바울이 칼빈신학에 준 영향만으로도 칼빈에게는 선교사상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청해서 함께 목회한 일과 선교현장에서 동역한 일은 기욤 파렐(Guillaume Farel)이 칼빈을 붙잡고 제네바에서 함께 목회한 일 또한 재미있는 비교가 된다.

종교개혁 당시의 제네바(Geneva)시의 영적 상태를 로베르 벨라르

18) William R. Hogg, “개신교 선교사상”, G. E. Anderson, ed. **선교신학서설** 박근원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5), p. 121.

19) Von Walter Holsten, “Reformation und Mission” *Archiv für Reformation Geschichte Vol. 44(1953)*, p. 32.

20) *Ibid.*, pp. 1-2.

망(Robert Bellarmine)²¹⁾은 매우 어둡게 표현하고 있다. 즉 1536년 이전에 제네바시는 시민들이 로마 카톨릭의 감독과 이 시의 행정책임자를 축출하였으나, 그후에도 이들 프로테스탄트들은 전혀 미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제네바시는 영적으로 폐허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종교적 권위를 거부하고, 돈, 장사, 쾌락, 그리고 스포츠밖에 몰랐다.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시민들의 성경지식은 형편이 없었고, 교회의 치리는 있으나마나 였다.²²⁾ 이러한 시기에 제네바시에서 불을 토하듯 설교하던 기욤 파렐이 그 당시 **기독교 강요**의 출판으로 명성이 높았던 방랑하는 학자 칼빈을 붙잡고 제네바시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였다. 1536년경의 제네바시에서의 파렐과 칼빈의 신앙의 교제는 마치 1,500여년전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신앙적 교제 관계로 대비시켜 볼만한 연구일 것 같다.

그리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에서 “개혁”의 의미가 “잘못된 부분을 뜯어고치는” 의미, 다시 말해서 “헌집, 낡은 집을 수리”하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프랑스어에서 “개혁”(Reformer)이란 “다시 새롭게 형성한다”는 뜻이며, 1559년에 작성된 프랑스 교회 선언문 제 31항은 “종교 개혁자들이란 하나님께서 폐허가 된 교회를 새롭게 일으키시기 위하여 특별히 불러 세운 사람들”이라고 정의한다.²³⁾ 그리고 “프로테스트 한다”(to protest)라는 동사는, 상식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교황)에 대한 항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²⁴⁾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헬라어 “protestai”(“증거한다, 공식적으로 선

21) Bellarmine(1542-1621),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교로서 예수회(Jesuit Order)에 소속되어 있었고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적 기록을 남겼다.

22) Paul T. Fuhrmann, *Instruction in Faith* 1537,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49), p. 1.

23) *Ibid.*, p. 2.

24) 사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한 한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상식선에서 대부분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의 의미를 로마 카톨릭 교회 내지는 교황에 대한 “항거한다”는 protest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 자가 많다.

포한다”)에서 왔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칼빈은 교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자요, 복음의 “증거”와 “선포”에 생애를 걸었던 진정한 의미에서의 프로테스탄트였다.

III. 칼빈의 주석에 나타난 선교사상

1. 칼빈과 성경

종교 개혁자 칼빈은 “성경적 원리주의에 가장 투철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누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있으랴만 역사상 칼빈만큼 성경을 사랑했던 자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칼빈은 성경을 절대무오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적 인식을 통하여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믿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사색과 활동을 마치 수영하는데 비유한다면 칼빈은 성경이라는 대해(大海)에서 신학이라는 수영법을 사용하여, 바닷속 깊이 그리고 수평선 저 멀리,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게 헤엄을 쳐 나간 사람이다. 인류 역사상 실로 칼빈만큼 성경연구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자도 드물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깊이 있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에 대한 비상한 재능과, 어려서(12살)부터 성직에 헌신하면서 닦아온 해박한 성경지식과 고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같고 닦아진 날카로운 지성과, 천부적 예리하고도 냉철한 이성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득찬 사람이었다. 여기에다가 뜨거운 그의 영성까지 합쳐져서 칼빈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주옥같은 주석들을 쓰게 되었고, “성경의 사람 칼빈”이 되게 하였다. 이 성경 안에 은혜의 샘이 있고 이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이용하도

록 자극을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성경을 잘 풀어 설교했던 크리소스톰(Chrysostom)의 설교집을 펴낼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니, 지금도 제네바에 남아있는, 1535년도쯤으로 연도가 추정되는 칼빈 자필 기록의 편집서문으로 알 수 있다.²⁵⁾

칼빈은 1534년 6월 4일 인쇄가 끝난 불어판 성경 올리베타누스(Olivetanus) 성경번역에 깊이 관여하였다. 표지에는 이 성경이 전적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이어 성경만을 근거로 번역했다고 했으나 다른 어떤 성경을 전혀 참고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구약성경만은 1530년에 나온 자끄 르페브르 데따플(Jacques Lefèvre d'Etapes) 역에 특히 의존을 한 것 같고 시편만은 올리베타누스(Olivetanus) 자신의 작업 것이다. 그는 묵시적인 내용의 번역에는 르페브르데따플(Lefèvre d'Etapes)작을 자주 인용하였다.

Calvin was closely connected to Olivetanus's French translation of the Bible, which came off the press on June 4, 1535. The title page indicates that the text of the translation is based entirely on the Hebrew and Greek, but that does not take away from the fact that

25) COIX : 831-35. "Calvin wished to stimulate as much use of the Bible by the common people as possible. Because of the growing interest in the Bible, he had plans to produce an edition of sermons by Chrysostom, believing that these sermons would greatly contribute to the use of Scripture. A hand written forward for the edition, dating probably from 1535, is extant in Geneva," (Wulfert de Greef : 90)

cf.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려면 다음 자료를 참고

① John H. McIndo gives 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foreword in "John Calvin : Preface to the Homilies of Chrysostom," *Hartford Quarterly* 5 (1965) : 19-26.

② John Robert Walchenbach, *John Calvin as a Biblical Commentator : An Investigation into Calvin's use of John Chrysostom as an Exegetical Tutor*(Pittsburgh, 1974).

③ Alexandre Ganoczy and Klaus Müller, *Calvins handschriftliche Annotation Zu Chrysostomus : Ein Beitrag Zur Hermeneutik Calvins*(Wiesbaden, 1981).

Olivetanus made use of other translations as well. As far as the Old Testament is concerned, he relied especially on the translation by Jacques Lefèvre d'Étaples, which had appeared in 1530, although Olivetanus did produce his own translation of the Psalms. He also made frequent use of the work of Lefèvre in translating the apocryphal writings. (de Greef : 90).

기욤 파렐의 요구에 따라서, 올리베타누스(Olivetanus)의 성경번역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왈도파(The Waldenses)로부터 1532년 9월 12일 샹포랑(Chanforans)의 총회 때 받아 드리고 그들과 종교개혁에 함께 협력하기로 결의하였다.²⁶⁾ 1535년 2월 12일자로 출판된 성경의 머리말에서 올리베타누스(Olivetanus)는 별로 유명하지 아니한 “가난한 교회” 이름으로 헌사를 썼다. 이 성경은 뉴샤텔(Neuchâtel) 가까운 곳에 있는 세리레스(Serrières)에 사는 뻬에르 드 윙글(Pierre de Wingle)씨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고, 1535년 9월에 샹 포랑(Chanforans)에서 열린 왈도파(The Waldenes) 총회에 제출되었다.²⁷⁾ 1535년 판에만 나오는 라틴어 서문은 칼빈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Ioannes Calvinus Caesaibus, Principibus, Gentibusque Omnibus Christi Imperio Subditis Salutem,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²⁸⁾

이 서문에서 칼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직접적인 지식

26) de Greef, *Ibid.*

27) See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Bible, Vol. 3, The West from the Reformation to the Present Day, ed. S. L. Greenslade (New York, 1978), 117-20; Eugénie Droz, "Calvin collaborateur de la Bible de Neuchâtel," in idem, *Chemins de l'hérésie: Textes et documents*, 4 vols. (Geneva, 1970-76), 1:102-17; Jürgen Quack, "Calvins Bibelvorreden(1535-1546)," in idem, *Evangelische Bibelvorreden von der Reformation bis zur Aufklärung* (Gütersloh, 1975), 89-116.

28) CO, IX: 787-90. cf. 1536년판 Calvin의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Ford Lewis Battles, rev. ed. (Grand Rapids, 1986), 373-77에 Appendix 4, "John Calvin's Latin Preface to Olivetan's French Bible(1533)." 이라고 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토착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토착화 선교의 일단계이다. 당시의 카톨릭 지도층이 일반 민중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박탈했을 뿐 아니라 민중들이 말씀과 접촉하는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허용하지 아니했다. 칼빈은 이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진정한 양식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성도들에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해주지 아니하고 대신에 자기들의 오염된 생각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로마의 감독과 그의 사제에게 (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등불을 말아래 감춰두었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선언했다.²⁹⁾

칼빈은 또한 1545년에 불어판 신약성경 서문을 쓰는데 재휴하였다. 서문의 머리말은: *A tous amateurs de Iésus Christ et de son S. Evangile, Salut*³⁰⁾이라고 되어 있었다. 이 서문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께

29) de Greef, *Ibid.*, 91. The Latin foreword, which appears only in the edition of 1535, is by Calvin and has its title *Ioannes Calvinus caesaribus, regibus, principibus, gentibusque omnibus Christi imperio subditis salutem*(CO 9:787-90). In the foreword Calvin pleads for the Bible in the vernacular so that all believers will be able to have a direct knowledge of what Scripture says. He talks about “impious voices” (the Sorbonne) who deprive simple folk of the Word of God or at least of direct contact with the Word. That is in conflict with true piety and with the intention of God, who has always been pleased to reveal himself to the poor and chose his prophets and apostles from among shepherds and sinners. Calvin also criticizes the priests and bishops who, as shepherds of the sheep, withhold the real food (the Word of God) and offer contaminated fare instead (their own ideas). He declares the bishop of Rome and his priests to be guilty because they have hidden the light under a bushel.

30) CO IX: 791-822) Theodore Beza에 의해서 1576년에 그의 *Lettreset avis de Calvin*에 실린 라틴어 번역이 출판되었다. A second foreword precedes the New Testament. It is anonymous and written in French, but after 1545 it was associated with Calvin. The heading of this foreword reads: *A tous amateurs de Iésus Christ, et de son S. Evangile, salut*(CO 9:791-822; a Latin version was published by Theodore Beza in 1576 in his *Lettres et avis de Calvin*). In this foreword Christ is extolled a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that is the fulfilment of the old.

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서 칭송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복음없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다. 이 서문의 형식은 1532년에 로베르 에스띠엔느(Robert Estienne)에 의해서 출판된 라틴어 벌게이트(Vulgate)³¹⁾ 판과 비슷하고 내용에 있어서는 1534년에 언약에 관해서 쓰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의 논문³²⁾과 매우 가까운 유사점이 있다고 이레나 백쿠스(Irena Backus)와 크래어 치멜리(Claire Chimelli)가 지적하고 있다.³³⁾

1543년에 제네바에서 발견된 칼빈이 쓴 성경 머리말에는 신약과 구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이 칼빈이 쓴 두통의 편지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종결이 되시고 성경에서 기다리는 모든 내용의 총체”가 되신다고 했다.³⁴⁾ 1535년판 칼빈의 머리말은 1544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성경에 다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내용은 1543년 그의 편지에 썼던 내용에 조금더 추가하였다.

We cannot do without the gospel. Without it we are not Christians. In their introduction to this foreword, Irena Backus and Claire Chimelli point out its relationship to two other writings. In form it resembles the Latin foreword to the Vulgate published by Robert Estienne in 1532. In content it more closely resembles Heinrich Bullinger's 1534 treatise on the covenant.

31) *La Vraie Piété: Divers traités Jean Calvin et Confession de foi de Guillaume Farel*, ed. Irena Backus and Claire Chrmelli (Geneva, 1986), 17-23.

32) *Biblia: Breves in eadem annotationes ex doctissimis interpretationibus et Hebraeorum commentariis* (Paris, 1532).

33) *De testamento seu foedere Dei unico et aeterno Henrychi Bullingeri brevis expositio* (Zurch, 1534).

34) de Greef, *Ibid.*, 92. 그 편지의 전체 표제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complete title of the two letters reads: Deux épistres, l'une demonstre comment nostre Seigneur Iésus Christ est la fin de la loy, et la somme de tout ce qu'il faut chercher en l'Excriture. Composée par M. I. Calvin. L'autre, pour consoler les fidèles qui souffrent pout le nom de Iésus, et pour les instruire à se gouverner en temps d'adversité et prospérité, et les confirmer contre les tentations et assautz de la mort. Composée par M. P. Viret.

1535년판 올리베타누스(Olivetanus) 성경번역에는 “V. F. C. à nostre allié et confédéré le peuple de l’alliance de Sinai, Salut” 라고 되어 있는데 “V. F. C.가 우리의 동역자, 연합자, 시나이 언약의 백성에게 편지 하노라”는 뜻인데 V. F. C.는 Votre Frère Calvin(“여러분의 형제 칼빈”)의 약자로 이해되어 왔는데³⁵⁾ 또 달리 비레(Viret), 파렐(Farel), 그리고 칼빈(Calvin) 세사람의 이름 첫글자와 관계 되기도 했다.

제네바 학교의 교장인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가 신약성경을 출판하려고 1540년에 번역을 한후 1542년 9월 9일에 칼빈에게 찾아와서 감수를 요청했다. 다 읽어본 칼빈은 고쳐야 할 곳이 적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그 신약성경 번역의 출판에 동의해 주지 아니했다. 카스텔리오(Castellio)는 칼빈과 이점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원했지만 칼빈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카스텔리오(Castellio)는 후에 바젤(Basel)에서 이 성경번역을 끝내고 라틴어는 1551년에 불어판은 1555년에 각각 출판했다.³⁶⁾

지금까지 칼빈이 성경번역에 참여하여 왔음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것만으로도 칼빈이 선교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위클리프성경 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을 번역하러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들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35) Dorz, *Chemins*, 1:108-15.

36) *CO XIII*: 439. 9월 11일자로 Pierre Viret에게 보낸 편지를 참고. cf. de Greef, *Ibid.*, p. 92.

Meanwhile, Sebastian Castellio, the rector of the school in Geneva since 1540, also intended to publish a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On September 9, 1542, he approached Calvin with the request to approve his translation. Calvin did not want to hold up the edition, but he informed Castellio that quite a few corrections would be necessary. No agreement could be reached, Castellio did not want to have the translation corrected, but he did want to arrange for Calvin to go over it and discuss it with him. Calvin would not go along with that proposal, however, since he had the impression that Castellio would argue endlessly about each suggested correction (see *CO 13:439*-the letter written to Pierre Viret on September 11). Castellio later completed his Bible translation in Basel. The Latin edition appeared in 1551 and the French in 1555. p. 92. 부분 인용.

들을 돕기 위해서 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선교사로 인정한다. 이런 현대적 선교개념으로 볼 때도 성경번역에 참여한 칼빈은 선교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칼빈의 성경주석과 선교

1536년 파렐이 칼빈을 제네바에 붙잡아 두는데 성공하였을 때 칼빈은 성서문학 강사로서의 사역(Sacrarum Literarum Doctor)을 제네바의 대성당 생뻘에르(Saint Pierre)에서 시작했는데 주로 바울서신들을 강의했다. 이 날이 아마 9월 5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이 날 짜로 파렐이 시의회 재정에서 칼빈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도록 신청한 날이기 때문이다.³⁷⁾ 1537년 이전 언제부턴가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사로서의 의무들을 수행해 왔지만 칼빈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³⁸⁾

1538년 칼빈이 스트라스부르그으로 왔을 때, 그는 처음으로 그곳에 물려온 프랑스 난민을 위한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153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장 스투름(Jean Sturm)이 교장으로 있는 초급대학의 생도들에게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서를 강의했으며, 그는 신약해석을 강의하는 교사로 임명받았다.³⁹⁾ 칼빈의 성경강의는 언제 어디서 강의하든지 항상 거의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무제한으로 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주석 쓰는 일을 쉬지 않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준비 없이도 평소에 써둔 주석으로 강의할 수 있었다. 주석은 신약부터 쓰기 시작했다. 1540년 3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출판한 로마서 주석이 칼빈의 첫주석이다. 물론 이후에 더 좋게 다듬고

37) de Greef, *Ibid.*, p. 93.

38) *Ibid.*, p. 94.

39) *Ibid.*

정정해서 1551년과 56년에 개정판이 나오긴 했으나 칼빈이 주석을 쓰기 시작한 것은 아마 1536년 9월 5일부터 바울서신들을 강의하기 시작한 그 강의안 초안이 기초가 되어 정리한 것이 나중에 주석으로 출판되어 나온 듯 하다.⁴⁰⁾ 후기의 칼빈주석들은 그가 제네바의 대성당 생뵘에르 옆에 위치한 오디트와르(Auditoire)에서 강의하는 것을 서기들이 기록하여 이것을 다시 다듬어서 주석으로 출판했다.

칼빈이 1539년 10월 18일자로 바젤대학의 헬라이어 교수인 시몽 그리내우스(Simon Grynaeus)에게 쓴 편지가 칼빈의 로마서 주석초두에 보인다.⁴¹⁾ 이 편지 내용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칼빈과 그리내우스가 좋은 주석의 기준(The Criteria for a Good Commentary)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킨다.⁴²⁾ 이때 두 가지 기준 곧 교의적 설명이 되도록 간결히 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는 것(They had agreed that the principal virtue of an

40) 칼빈이 실제로 주석을 쓰기 시작한 것은 1532년 세네카 관용론 주석을 쓴후 부터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을 참고 바람.

Commentari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 Improved editions appeared in 1551 and 1556. For the text (of 1556 and the variants from 1551) see CO 49:1-292. A new edition of the commentary was produced by T. H. L. Parker: Iohannis Calvini Commentarius in Epistolam Pauli ad Romanos (Leiden, 1981). Parker gives the text of the commentary of 1556 with the variants from the editions of 1540 and 1551. A complete French translation of Calvin's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appeared in 1550 (Commentaire de M. Iean Calvin sur l'Epistre aux Romains) after only summaries had been published in 1543 and 1545 (respectively, Exposition sur l'Epistre de Saint Paul aux Romains: Extraicte des commentaires de M. I. Calvin, and Argument et sommaire de l'Epistre Saint Paul aux Romains, pour donner intelligence à toute l'epistre en peu de parolles. Par Iehen Calvin). See also Benoit Girardin, Rhétorique et théologique: Calvin, le commentaire de l'Epistre aux Romains (Paris, 1979); T. H. L. Parker, "Calvin the Exegete: Change and Development," in *Calvinus ecclesiae doctor*, ed. Wilhelm H. Neuser (Kampen, 1980), 33-46.

41) CO X: 402.

42) Hans-Joachim Kraus, "Calvin's Exegetical Principles," *Interpretation* 31(1977): 8-18; Park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49-68.

exegete is perspicua brebitas, by which they meant that dogmatic explanations should be kept as brief as possible. Furthermore, an exegete must concentrate on the mens scriptoris, that is to say, on making clear what a given writer intended to say.) 이라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필립 멜란흐톤(Philipp Melancthon)과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의 우수한 로마서 주석이 이미 나와 있음을 칼빈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사람에게 모든 사물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을 독점적으로 다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했고, 이점에서 우리(칼빈과 그리내우스)가 겸손히 협력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했다.⁴³⁾

주석가는 혁신의 열정에 이끌려서도 안되며 논증이나 남을 공격하거나 자신의 야망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태도로 주석해서는 안된다고 그의 로마서 주석서문에서 말하면서 로마서야말로 성경의 감추어진 보화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통로의 키(A key that gives access to all the hidden treasures of Scriptures)가 된다고 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모든 서신들의 내용에 대한 개관(Overview)을 열거하고 있다.⁴⁴⁾

로마서 10장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복음의 선포(The preaching of the Gospel)가 이방인들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The cause of faith among gentiles)이 되기 때문에 복음선포가 곧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이다”고 했다.⁴⁵⁾ 14절 말씀 Quomodo ergo invocabunt eum in quem non crediderint? quomodo vero in eum credent de quo non audiverint? quomodo autem audient absque predicante?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

43) de Greef, *Ibid.*, p. 95.

44) *Ibid.*

45) John Calvin, *Commentaries on the epistle the romans*, Tr. & Ed. by The Rev. John Owen, (Grand Rapids: Wm Eerdmans Pub. Co., 1947), p. 395.

함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특별섭리와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seed of the word)이 선행하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⁴⁶⁾

그는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efficacious)한 부르심이고 열매를 거두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고,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는 일에 결코 제외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했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함을 허락하셨다”고 했다.⁴⁷⁾

Now where his calling is thus efficacious and fruitful, there is there a clear and indubitable proof of the divine goodness. It will hence at least appear, that the Gentiles are not to be excluded from the Kingdom of God, for God has admitted them into a participation of his salvation. For as the cause of faith among them i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so the cause of preaching is the mission of God, by which it had pleased him in this manner to provide for their salvation.

전술한 바와 같이 로마서 주석은 칼빈이 주석을 쓰기 시작한 첫 작품으로서, 여기에 이미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칼빈의 선교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후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서 Missio Dei(하나님의 선교) 라는 용어와는 표현상으로는

46) *Ibid.*

47) *Ibid.*, p.397.

동일한지는 모르나 그 의미와 사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⁴⁸⁾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칼빈의 선교관(Calvin's view on mission)이라는 것을 우리는 칼빈의 신학사상 중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말씀선포의 신학사상임을 그의 주석이나 **기독교 강요**,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거듭거듭 반복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빈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도 말씀선포를 통한 선교의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칼빈의 선교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전제한 선교개념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선교사상은 **하나님** → **교회** → **세상**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진 선교이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교 패러다임에 의해서 기독교의 세계선교의 주된 흐름이 전개되어 온 것을 볼 때 칼빈은 과연 개신교회의 세계선교의 신학적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후에 보에티우스(Gisbertus Voetius 1589-1676)에 의해서 ①이방인들의 개종(Conversio Gentilium) ②교회의 설립(Plantatio Ecclesiae) ③하나님 영광의 선포(Gloria et Manifestatio Gratiae Divinae)라는 내용이 전통적 선교의 목표가 되었지만 이것은

48)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서의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의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의 유효한 부르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신다는 것과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를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로서 이 과정의 일을 하나님은 교회라는 기관에 맡기셨다고 보는 것이 칼빈의 하나님의 선교사상이다 (**기독교 강요** 제IV권 전반부 참조).

그런데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서 주로 비설 후프트등에 의해서 주장되는 Missio Dei 개념은 칼빈이 표현한 “하나님의 선교” 개념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적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Missio Dei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선교의 주체로 보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선교의 의지로 가득차 있음을 전제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의 뜻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구원사역의 결과로의 코이노니아 라고 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 자신의 영역이지 교회의 활동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칼빈이 표현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 **교회** → **세상**의 패러다임을 가진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의 기초가 되고 있음에 반해서, Missio Dei의 선교의 패러다임은 **하나님** → **세상** → **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교회의 선교활동에 위축을 가져온 것이다.

전적으로 칼빈의 선교사상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보에티우스는 17세기 화란의 대표적인 칼빈주의 선교신학자로서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교회정치(*Politica Ecclesiastica*)에서 그는 선교의 기원론을 전개하면서 삼위 하나님은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선교사역을 수행한다고 주장한 것은 앞서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선교사상과 거기에 내포된 **하나님** → **교회** → **세상**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학자는 보에티우스가 로마 카톨릭 선교신학으로 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으나⁴⁹⁾ 보에티우스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는 달리 토착교회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교회의 설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선교의 궁극적 목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 현대선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 알미니우스(Arminius)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선포로 유명한 도르트 회의(1618-19) 기간 중에 거기 참석한 보에티우스는 윌리엄에임스(William Ames:1576-1633)와 함께 교회의 본질로서의

49) J. Van den Berg, *Ibid.*, pp. 172-73. "Of more importance was the missionary interest which was present in the circle of seventeenth century Calvinism in the Netherlands. There we witness a remarkable outburst of zeal for the cause of missions, which also led to practical results.

It was the theologian Gisbertus Voetius, who in his works gave ample room to the treatment of the missionary activity of the church. We give him special attention, since in him for the first time Calvinistic theology proved its value for the cause of missions. A Roman Catholic author contended that in his missiology Voetius was quite dependent on Roman Catholic missiology.

This contention is not fully without ground. There was indeed some formal influence of Roman Catholic authors on Voetius, but there is no reason whatever to suppose that Voetius' missiological interest was a symptom of a return to more "Catholic" ideas which was asserted to be one of the marks of the so-called "Second Reformation." On the contrary, the essence of his missiology was in full harmony with the principles of the Genevan Reformer."

선교적 사명(The missionary nature of the church)을 확정하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였다.⁵⁰⁾

칼빈의 로마서 주석에 이어 1542년과 45년에 유다서와 베드로 전후서가 칼빈에 의해서 출판되었지만, 이것은 칼빈의 강의안을 출판한 것이고 순수하게 주석으로 **로마서 주석** 다음에 나온 것은 고린도전후서 주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¹⁾ 1546년 1월 24일자로 칼빈이 Jacques de Bougogne Lord of Falais and Breda에게 헌정한 책이 **고린도전후서 주석**으로서 서문에 헌사가 있다(CO, XII: 258-60). De Falais는 찰스 5세의 궁정에서 자라나서 젊은 청년 시절에 종교개혁에 가담해 왔다. 1543년 10월 14일 칼빈은 de Falais와 그의 아내 Yolande de Brederode에게 프랑스를 떠나 이민을 가도록 충고해 주었는데, 프랑스에 있으면 그들이 위험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1556년 1월 24일자로 칼빈은 고린도전후서 전체를 다시 주석하고 새로운 서문을 썼다. 칼빈은 또한 이 **고린도전후서 주석**을 1546년 8월 1일자로 과거 그에게 오르레앙에서 헬라어를 가르쳐 주었던 Melchior Wolmar에게 헌정을 하였다.

50) J. A. Jongeneel, "Voetius, Zendingstheologie de eerste comprehensive protestantse zendingstheologie," in *De Onbekende Voetius, J. Van Oort*, ed. (Kanpen: kok, 1989), pp. 117-147. Wm Ames의 저서로는 John D. Eusden에 의해서 편집된 *The Marrow of Theology*, (신학의 정수, Boston: Pilgrim Press, 1968). 참조할 것.

윌리엄에임스는 네델란드의 보렐 지역에서 영국인 종군 목사로 있었고 1622년부터는 Franeke 대학 신학교수로 가르쳤다. 그는 당시 Utrecht 대학교수인 Gisbertus Voetius와 Johannes Hoornbeek에게 영국의 청교도의 사상적 영향을 미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화란에서 제2의 종교개혁(Second Reformation)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Sprunger, K. L., 의 *The Learned Dr. William Ames*(Urbana, 1972)을 참조할 것.

51) Latin: *Iohannis Calvini Commentarii in priorem Epistolam Pauli ad Corinthios* (Strasbourg, 1546—CO 49:293-574), and *Ioannis Commentarii in secundam Pauli Epistolam ad Corinthios* (Geneva, 1548—CO 50:1-156); French: *Commentaire de M. Iean Calvin, sur la première Epistre aux Corinthiens, traduit de latin en françois* (Geneva, 1547), and *Commentaire de M. Iean Calvin, sur la seconde Epistre aux Corinthiens, traduit de latin en françois* (Geneva, 1547).

그가 동료 Farel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CO, XII:391) 그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준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Wendelin Rihel에게 이 책을 출판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느꼈다고 했다. 불어판 고린도전후서가 1547년에 출판되고 라틴판이 1년후에 또 Geneva에서 출판되었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 고린도전후서의 주석에는 다른 주석에 비해서 헬라어가 더 많이 등장한다. 고린도전서 3:5~6을 주석하면서 복음의 전파는 마치 식물(Plant)을 새로운 땅으로 옮겨 심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Ego plantavi, Apollos rigavit: at Deus incremen-tum dedit”에서 나“(Ego)는 심었고(plantavi), Apollos(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rigavit)” 이 말은 “나” 곧 바울과 아볼로는 5절에 “사역자들”(Ministri)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자들⁵²⁾(Those are ministers whose services God makes use of, not as though they could do anything by their own efforts, in so far as they are guided by his hand, as instruments.)로서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시되 인간사역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과 각각 그의 은사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Dei enim cooperarii sumus, Dei agricultura, Dei adificatio estis.”라고 한 것은 선교적 의미가 깊다. 곧 이방인들이 사는 그곳을 “하나님의 밭”(Dei agricultura)이라 한 것은 요즈음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선교지”(The mission fields of God)이 된다. 그 밭에 나 (Ego=Paul)는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 가꾸듯이 부지런히 가르쳤으나, 그러나 선교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식물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하듯이 복음도 하나님께서 선교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받

52) John Calvin, *Commentary on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Wm. Eeretmans Pub. Co., 1948), p. 126.

아들이도록 하셔야 널리 전파되는 것이다. (“That the earth may bring forth fruit, there is need of ploughing and sowing, and other means of culture; but after all this has been carefully done, the husbandman’s labour would be of no avail, did not the Lord from heaven give the increase, by the breaking forth of the Sun, and still more by his wonderful and secret influence. Hence, although the diligence of the husbandman is not in vain, nor the seed that he throws in useless, yet it is only by the blessing of God that they are made to prosper, for what is more wonderful than that the seed, after it has rotted, springs up again! In like manner, the word of the Lord is seed that is in its own nature fruitful: ministers are as it were husbandmen, that plough and sow. Then follow other helps, as for example, after casting the seed into the ground, they give help to the earth as much as is in their power, until it bring forth what it has conceived: but as for making their labour actually productive, that a miracle of divine grace—not a work of human industry.”)⁵³⁾

이와 같이 칼빈의 그의 주석에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선교와 말씀선포 중심의 선교를 펼치면서 복음과 문화와의 관계를 씨(seed=plant)와 토양과의 관계에서 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토착화 선교사상의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가 있다.

칼빈은 선교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었다. 영혼들이 구원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구원사역을 위한 인간의 활동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이도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선교의 길을 여시고

53) *Ibid.*, p. 127.

자기 종을 부르셔서 이 위대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주석에서 주의 종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진하지만, 문이 닫혔을 때는 열매맺을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문이 열린다는 이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만 의지할 뿐이다. 이방 세계에 대한 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열렸을 때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섭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선교하기 전에 전적으로 수동적 자세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⁵⁴⁾ 칼빈의 라틴어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주석이 인쇄 완료된 것이 1548년 제네바에서 었다.⁵⁵⁾

이 주석책을 칼빈은 1548년 2월 1일 뷔텐베르그의 공작인 크리스토프(Christoph, duke of Wüttemberg)에게 헌정했는데 크리스토프 공작은 당시 몽 벨라르(Mont Béliard)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고, 그 지역

54) John Calvin, *Commentary on The Second Epistle to the Corinthians*: 1948, 2:12, J. Van den Berg, *Ibid.*, p. 169. "But what is the task of the church in this respect? In the first place we must remark that Calvin was deeply convinced of God's guidance in this matter: not the work of man, but the work of God receives the central place: it is not our work, but God's electing love when souls come to the light of salvation: human activity is only possible by the grace of God: it is God who opens the door, who shows the way, who calls his servants to the great task.

In his Commentary on II Corinthians 2:12 Calvin writes that the servants of the Lord make progress when the opportunity is given, but that the door is closed where no hope of fruit becomes visible. This idea of the opening of the door was fully integrated into the whole of his thinking: we are totally dependent on the mercies of God; but at the same time the circumstances of that period corroborated this view: it was really felt as a providential fact when the door to the heathen world was opened by the hand of God. This does not mean that according to Calvin the church had to wait in complete passivity."

55) de Greef, *Ibid.*, p. 96. Latin: *Ioannis Calvini Commentarii in quatuor Pauli Epistolas: Ad Galatas, ad Ephesios, ad Philippenses, ad Colossenses* (Geneva, 1548—CO 50:157-268: 51:137-240; and 52:1-132); French: *Commentaire de M. Iean Calvin, sur quatre Epistres de Saint Paul: Assavoir, aux Galatiens, Ephésiens, Philippiens, Colossiens* (Geneva, 1548).

에서 1543년과 44년에 크리스토프 공작이 루터교식의 예배를 인도하려다가 삐에르 투쌍(Pierre Toussaint)등의 무리와 충돌하는 문제가 야기했다. 칼빈은 삐에르 투쌍에 의해서 크리스토프 공작에게 헌사를 쓰도록 강요당했다. 칼빈은 생각하기를 라틴어를 알고 있는 공작이 헌사를 읽으므로써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⁵⁶⁾

여기서도 우리는 칼빈이 선교적 동기(The missionary motive) 내지는 선교적 목적(The missionary purpose)에서 위의 네 서신의 헌사를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⁵⁷⁾ 1948년 7월 25일에 칼빈은 디모테전후서의 라틴판 주석을 어린 영국왕 에드워드 6세의 후견인으로 1547년부터 49년까지 섬긴 썸머셋의 공작인 에드워드 세이모아(Edward Seymour 'duke of Somerset)공에게 헌정하였다(CO XIII: 16-18). 에드워드 공작은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의 지원을 받으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을 시작하였다.⁵⁸⁾ 칼빈은 에드워드공에게 영국 땅에서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그의 열정을 격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교회정치(Church Government)의 형태(pattern)를 영국에서도 따라주기를 희망했다(CO XIII: 300-302).

이제 칼빈은 제네바에 중심을 잡고 전세계를 향하여 문서선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의 종교개혁 운동은 부정과 타락으로 무너져 내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 교회의 기초 위에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방 땅에까지 선교를 확장해 가고자함이 칼빈의 선교사상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자체가 선교의 기초 초석을 놓는 작업이라 할 수가 있겠다.

56) *Ibid.*, p. 97.

57) *Ibid.* Latin: *Ioannis Calvini Commentarii in utramque Pauli Epistolam ad Timotheum* (Geneva, 1548—CO 52:241-396); *Commentaire de M. Iean Calvin, sur les deux Epistres de Sanct Paul à Timothée, traduit latin* (Geneva, 1548).

58) *Ibid.*

1549년 3월 25일자로 칼빈은 제네바시의 의회에서 자기의 히브리서 주석의 출판 허락을 청원하면서 그는 성경에 기초한 책이외의 어떠한 책도 인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청원은 곧 허락되었고, 같은 해 라틴어와 불어판 히브리서 주석이 나왔다. 1549년 3월 23일자로 쓰인 머리말에서 칼빈은 폴란드의 씨지스문트 아우구스트(Sigismund August) 왕에게 이 히브리서 주석을 바친다(CO XIII: 281-86)고 했다. 그는 히브리서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과 승귀를 가르치는 직분과 독특하신 제사장직 등을 충분히 언급하므로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권세와 직분을 생생하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에 비길데 없는 보화로 이 서신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의무가 교회에 있다 했다.

전에 왕의 아버지에게 요한 엑크(Johann Eck)가 미사에 관한 작은 책자 한권을 헌정한 사실을 상기하면서 칼빈은 미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왕이 폴란드의 종교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⁵⁹⁾ 거듭 강조되는 말이지만 이와 같이 칼빈이 주석을 쓴 동기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저작활동은 하지 않기로 한 것과 둘째는 이 주석 저작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당시 칼빈으로서는 종교개혁 운동의 확산을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급선무요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다.)에 기여하고자 했음을 히브리서 주석 머리말에서 살펴보았다. 필자가 “칼빈의 선교사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더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금세기 최대의 칼빈신학 사

59) de Greef, *Ibid.*, p. 98.

폴란드 왕에게 보내는 이 히브리서 주석헌사는 칼빈과 폴란드의 접촉의 시작이다. 다음을 참고 바람.

Oscar Barrel, “Calvin und Polen” in *Regards contemporains sur Jean Calvin: Actes du colloque Strasbourg 1964* (Paris, 1965), 253-68.

상 연구가로 알려진 미국 미시건(Michigan)주 홀랜드(Holland)시에 있는 웨스턴(Western) 신학교 헤셀링크(Hesselink) 박사님을 찾아갔을 때⁶⁰⁾ 그가 하는 말이 “칼빈에게 현대적 개념의 선교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없다할지라도 그의 선교사상은 확고하다”고 했으며 “그는 전유럽을 상대로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종교개혁이라는 선교활동을 전개한 선교사상가요 선교의 선각자요, 선교지도자로서 그가 종교개혁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생각해 볼 때 선교라는 개념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최선의 일을 그가 한 것”이라고 했다. 1549년 11월 29일자로 칼빈은 또한 **디도서 주석** 서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한 동역자 된 기욤 파렐(Guillaume Farel)과 삐에르 비레(Pierre Viret)에게 바친다”는 헌사를 썼다.

1550년 2월 17일자로 된 그의 **데살로니가 전서**의 머리말에서는 과거 그에게 라틴어를 가르쳐준 마투린 코디에(Mathurin Cordier)에게 바친다는 헌사를 쓰면서 “이 주석으로부터 도움받는 자는 코디에 선생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동년 7월 1일자로는 가정주치의인 베노 텍스토르(Benoit Textor)에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헌사를 썼는데 위의 두 서신 인쇄는 1551년에 바울서신 전체 주석의 출판(A Complete edition of Epistles of Paul)⁶¹⁾ 때에 나왔다. 바울서신 전체가

60) 필자는 1998. 7. 31. 11시 30분에 Hesselink 박사님과 만날 약속을 하고 101 E. Thirteenth Street, Holland에 위치한 Western Seminary를 방문했다. Hesselink 박사님은 1961년 Basel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까지 칼빈연구로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학자중의 한분으로서 12년간 일본에서 선교사로 체류하면서 신학강단에서 강의했고 Western 신학교의 역사 신학교수및 학장으로서 재직하면서 “On Being Reformed,” “Calvin’s Concept of the Law,” “Calvin’s First Catechism” 등의 명저를 저술한 학자이다. 특히 그의 “Calvin’s Concept of the Law”는 K. Barth(Basel), H. Berkhof(Leiden), Brian Gemsh(Chicago), T. F. Torrance(Edinburgh) 등의 세계적 석학들로 부터 격찬을 받고 있는 금세기 칼빈 연구에 있어서의 최고의 권위서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61) *Commentarii in Preorem Epistolam ad Thessalonicenses* (CO LII: 133-80).

출판되어 나온 주석에서는(In Omnes Pauli epistolas atque etiam in Epistolam ad Hebraeos) **빌레몬서** 주석(CO LII: 437-50)도 첫선을 보였는데 테오도어 베자(Theodore Beza)가 전체의 서문을 썼다.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주석을 칼빈은 1551년 1월 24일자로 영국왕 에드워드 6세에게 바치는 헌사에서 트렌트회의(The Council of Trent)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쓰고 있다.⁶²⁾

이 헌사에서 칼빈은 요시아 왕이 순수한 종교를 복구시킨 사례를 들면서 복음은 어떠한 종교행사의 이름으로든 그 명백한 진리가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카톨릭에서 행하는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나 성사의 중재기도의 남용이나 성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맹세등 진정한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이런 모든 요소에 대해서 왕이 앞장서서 행동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영국왕께 보내는 주석을 니콜라스 데 라 폰테인(Nicolas de La Fontaine)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⁶³⁾ 칼빈은 사도행전을 2부로 나누어서 주석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제1부로서 1552년 2월 29일자로 덴마크의 왕 크리스찬 3세(Christian III세)에게 헌정하였고, 2부는 14장부터 28장까지는 덴마크 왕자 프레데릭(Frederick)공에게 1554년 1월 25일 헌정하였다.⁶⁴⁾

이 주석에서 칼빈은 로마의 적그리스도를 공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복음을

62) (CO XIV: 30-37). Latin: *Ioannis Calvini Commentarii in Epistolas Canonicas, unam Petri, unam Ioannis, unam Iacobi, Petri alteram, Iudae unam* (Geneva, 1551-CO 55:201-500); French: *Commentaires de M. Iean Calvin sur les Canoniques* (Geneva, 1551).

63) de Greef, *Ibid.*, p. 99.

64) CO XIV: 292-96., CO XV: 14-17.

Latin: *Commentariorum Ioannis Calvini in Apostolorum, liber I* (Geneva, 1552-CO 48:1-317); French: *Le Premier Livre des Commentaires de M. Iean Calvin, sur les Actes des Apostres* (Geneva, 1552); Latin: *Commentarius Ioannis Calvini Acta Apostolorum* (Geneva, 1554-CO 48:317-574); French: *Le Second Livre des Commentaires de M. Iean Calvin, sur les Actes des Apostres* (Geneva, 1554).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칼빈의 글은 분명히 복음선포에 의한 세계선교의 사상을 풍성히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힘 있게 싸우자, 씩씩하고 용감하게 우리들이 받은 소명 안에서 전진하여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주신다”(Let us fight stoutly under Christ’s banner; let us go forward manfully and courageously in our vocation, and God will give fruit in due time.)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에 존재한다”(The Kingdom consisteth in the preaching of the gospel)든지 혹은 “복음의 선포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그에게 복종시키게 하신다”(He subdueth unto himself all the whole world by the preaching of the gospel)는 해석에서 칼빈의 선교적 개념(The missionary concept of Calvin)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 단하루의 공간(눈 앞에 보이는 세계만)을 위해서 사역해서는 안되고 전세계가 그들에게 할당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했고 엡 2:14을 인용하면서 이방인과 막혔던 담이 헐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든지 설 수 있다”(His Kingdom may be erected everywhere.)고 하므로써 복음선교의 범위가 전세계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즉 어느 누구에게나 어디나 선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해함으로써 칼빈의 선교신학이 현대적 선교신학에서의 개념과 조금도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요한복음의 주석은 1553년 1월 1일자 칼빈의 서문에서 제네바시의 회와 평의원들에게 바친다라고 쓰고 있다.⁶⁵⁾ 그는 이 헌사에서 제네바(Geneva)야말로 여러 다른 곳에서 쫓겨온 피난민의 피난 센터라

65) de Greef, *Ibid.*, p.100. CO 47: v-vi, Latin: *In Evangelium secundum Iohan-nem, Commentarius Iohannis Calvini* (Geneva, 1553—CO 47:1-458); French: *Commentaire sur l’Evangile selon Saint Jean* (Geneva, 1553).

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도시는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까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시의회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1월 5일 그 자신이 요한복음 주석 한 권을 가지고 시의회로 가져갔다.⁶⁶⁾

칼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 받지 아니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성경말씀에서 ‘누구든지’ (whosoever)라는 보편적인 용어(universal term)을 쓴 것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초청 받음에 있어서와 믿지 않음으로써 단절되는데 대해 변명치 못하게 하는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초대됨으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문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대하여 열려있다. 그 문으로 들어서고 아니들어서고는 개개인의 믿음에 의한 결단이며, 개인의 책임이다.”고 하므로서 세계선교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칼빈은 반 덴 베르그(J. Van den Berg)의 지적대로 현대적 의미에서의 선교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만 비기독교 세계의 영적 갈구와 교회의 선교적 책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칼빈이 살던 16세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그가 활동하던 제네바라는 공간적 배경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논하는 것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다.⁶⁷⁾

66) *Ibid.*

67) J. Van den Berg, *Ibid.*, p. 168.

“The question is not, however, whether this modern concept of missions was familiar to Calvin, but simply whether he saw the needs of the non-Christian world and the obligation of the church to go out into this world to preach the message of Christ. With regard to the first point, we must not forget that because of various factors the heathen world as well as the world of Islam lay outside Calvin’s horizon. His knowledge of the non-Christian world

칼빈의 **공관복음서 주석**은 1555년 8월 1일에 라틴어 및 불어판이 함께 제네바에서 출판되었고, 이것을 칼빈은 영국의 난민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던 프랑크 푸르트(Frankfurt) 시의회에 헌정을 했다.⁶⁸⁾ 공관복음의 주석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여 그 순서에 따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틀을 맞추어 갔는데, 마르틴 부처(Martin Bucer)가 1527년에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출판한 공관복음의 방식을 칼빈이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공관복음 셋을 나란히 비교하지 않고는 온전히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칼빈에게 선교사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논함에 있어서, 칼빈에게는 현대적 개념의 선교사상이 없다고 주장하는자들 중에서 랄프 윈터(Ralph Winter)나 케네트 스코트 라토렛(Kneth Scott Latourette) 같은 학자들은 칼빈이 선교의 수단으로서의 소달리티(Sodality:교회와는 별개의 전문 선교기구)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부재를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칼빈이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과 같은 선교기구와 그 활동에 대해서 결코 모르고 있지 아니했다. 칼빈의 마태복음 23장 15절의

was to a large extent limited to what he had learned from classical authors, while the fact that the colonizing powers were Roman Catholic put up a strong barrier between the world in which the Reformer moved and that part of the world to which a later age would give the name of "mission field." Still it appears from his works that Calvin looked forward to the conversion of the nations, to the spread of the kingdom of God all over the world. In this context it is a remarkable complication that we find in Calvin some reminiscences of the old legend of the division of the world between the apostles."

68) CO XV:710-12, de Greef, *Ibid.*, p. 100.

Latin: *Harmonia ex tribus Evangelistis composita, Matthaeo, Marco et Luca; adiuncto seorsum Iohanne, quod pauca cum aliis communa habeat. Cum Calvini Commentariis* (Geneva, 1555—CO 45); French: *Concordance qu'on appelle Harmonie, composée de trois Evangelistes, asçavoir S. Matthieu, S. Marc, et S. Luc; item, l'Evangile selon Sainct Iehan: Le Tout avec les Commentaires de M. Iehan Calvin* (Geneva, 1555). See also Dieter Schellong, *Calvins Auslegung der synoptischen Evangelien* (Munich, 1969).

주석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실 때 그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열심”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수도원 운동을 열렬히 전개하여 외지선교 활동을 펴는 것으로 예를 들면서, 이들의 선교 결과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서 우리는 칼빈의 확고한 선교관을 발견하게 된다. 즉 칼빈은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한 사상을 성경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는 선교의 선각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의 본부 기지가 되는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선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지옥자식을 만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건전한 교회를 신속히 세운 후에 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선교사상인 것이다.⁶⁹⁾

칼빈의 구약주석 중에는 **이사야 주석**이 1551년에 제일 먼저 나왔다.⁷⁰⁾ 이사야 주석은 처음부터 주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칼빈의 이사야서 강의를 들어온 니콜라스 데스 갈라시우스(Nicholas Des Gallasius)가 1549년에 그의 노트를 잘 다듬어서 칼빈에게 보이고 칼빈이 정정 가필하여서 1550년 12월 25일 출판한 것을 영국왕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하였다.

69) J. Van den Berg, *Ibid.*, p. 168. “Calvin was aware of the missionary activities of the monastic orders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but in a vehement and not quite reasonable attack upon their method of proselytizing he compared their work with the activities of the Pharisees, who compassed sea and land to make proselytes whom they further turned into devils (Comm., Matt. 23:15).

Perhaps Calvin's estimate of the missionary work of the monastic orders made him the more averse to anything that could possibly approach our modern concept of institutionally organized missions.”

70) T. H. L. Parker,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Edinburgh, 1986): Wulfert de Greef, *Calvijn en het Oude Testament*, (Amsterdam, 1984).

Latin: *Ioannis Calvini Commentarii in Isaiam prophetam* (Geneva, 1551); French: *Commentaires sur le prophète Isaië. Par M. Iean Calvin* (Geneva, 1552).

여기서 칼빈은 이사야도 왕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최고의 왕(왕중왕)이신 그리스도를 잘 섬겨 왔다는 사실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전세계로 확산될 것임을 말하면서 신약의 시대는 선교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칼빈은 신약의 시대를 사도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 그리고 교회 확장의 시대로 보았는데,⁷¹⁾ 교회 확장의 시대가 곧 선교의 시대인 것이라고 칼빈은 믿었다.

그래서 칼빈은 **이사야 주석** 49:23을 예로 들면서, 영국왕 에드워드 6세가 영국에서의 교회의 개혁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간의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자기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을 말했다. 칼빈은 **이사야서 주석**을 쓰면서 특히 선지직(The office of the prophets)에 대해서 해설하면서 율법의 해설자로서(As Interpreters of the law) 그들은 율법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해서도 안 되며, 해석자는 그것을 충실히(faithfully) 해설해서 율법의 권위를 떠받들어야(uphold) 한다고 했다.⁷²⁾ “우리 시대에는 미래적 예언이라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 from God in the sense of predictions about the future)는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과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시

71) C. L. Chaney, *The Birth of Missions in America*(Pasadena: Wm. Carey Library, 1976), pp. 32-33.

“Calvin postulated a tri epochal program of time between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 second advent of Christ. The first period was that of the apostles, during which the Gospel was offered to the whole world(see John Calvin’s commentary on Matthew 24:14). The second epoch was the period of the manifestation of antichrist, Calvin understood his own age to be that of the most effective work of antichrist. This helps explain why all of Calvin’s theology was written to people in the throes of persecution. His theology was written to the church under-the-cross. The final period was that of the great expansion of the church. During this epoch the fullness of the gentiles would come in, the ends of the earth would come to Christ and the antichrist would be defeated.”

72) de Greef, *Ibid.*, p. 103.

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며, 오늘날 이런 일은 경건한 교사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선포에 대해서 말해진다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칼빈이 **이사야 주석**에서 쓰고 있다.⁷³⁾

칼빈의 **이사야 주석**이 1551년에 에드워드 6세에게 헌정되었는데, 그는 1553년에 죽고 동생 메리 여왕이 왕위를 계승하자 개신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았다. 메리 여왕도 1558년에 죽자 그 동생 엘리자벳 여왕이 계승하게 되었고, 그녀의 통치기간은 영국교회가 종교개혁의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피터 마터 베르미글리(Peter Martyr Vermigli)가 칼빈에게 1558년 12월 1일자로 쓴 편지(CO XVII: 391)에서 “이세벨은 이제 죽고, 예루살렘의 성벽은 이제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칼빈의 1559년 1월 15일자 신판 **이사야서 주석**을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헌정하면서, 전에 에드워드 6세에게 부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영국에서의 교회개혁을 간절히 바라며 여왕께서는 힘있게 이 일을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며 복음적인 저술들이 영국에서 출현하게 될 것이고 난민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⁷⁴⁾ 그러나 여왕은 이 헌정을 받지 아니했다. 이유는 존 낙스(John Knox)가 제네바에 머무르는 동안에 여왕의 통치를 비난하는 신랄한 논문(A caustic treatise)인 “괴물 통치와 여인 제국을 향한 첫번째의 (경고) 나팔”(Th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and Empire of Women)을 썼기 때문이다.⁷⁵⁾

칼빈은 낙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축복에 의해서 특별한사를 받은 여자들의 다스림이 보다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낸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나태함을 부끄럽게 하

73) *Ibid.*

74) CO XVII:413-15, de Greef, *Ibid.*, p. 103.

75) CO XVII: 566.

시고자 함일 것이라면서 구약의 홀다와 드보라(Huldah and Deborah)의 예를 낙스에게 제시해 주었다.⁷⁶⁾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섭리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들을 뒤엎는 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칼빈은 강조했다. 칼빈은 또한 그 문제의 논문이 낙스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출판되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며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⁷⁷⁾

칼빈의 **이사야 주석**은 장차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God's promises)이 가장 명쾌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해석하기를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이 필연적이며 그렇게 해석한 본문중의 하나가 이사야 10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은 신약의 시대를 삼분하여 사도들의 시대,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끝나면 세계선교의 시대(=교회확장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이 때는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개종하여 전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교회 중심의 세계적 선교시대가 된다고 했다.

칼빈은 이사야 10장 23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 9장 27절이나 로마서 9장 28절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을 한 선지자의 시대에, 소수의 남은자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땅끝까지 온 세계중에 만군의 여호와와 선교의 의지는 실현된다고 칼빈은 주석했다.

It was almost incredible that the Jews, to whom so many promises had been given, and with whom God had made an everlasting covenantand in this sense it is used by Daniel (ix, 27) and other passages, Paul also quotes this passage in Rom. ix, 28.

76) CO XV: 125, de Greef, *Ibid.*, p. 104.

77) *Ibid.*

칼빈은 또한 “Et levabit signum Guntibus, congregabitque ejedos Israel, et dispersio-nes Iuda congregabit a quatuor plagis tenae.”(Is. XI. 12)을 해석하면서 “...so a banner is here held out to us, that we may assemble to it, namely, the gospel, which the Lord has lifted up among the Gentiles, by which Christ is preached to us.”⁷⁸⁾ 라고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서 널리 전파되어 높임을 받는다는 매우 선교적인 강한 의미에서 해석이 되고 있다.

또 이사야 19장 18절에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구원받고 하나가 멸망받을 것”을 칼빈은 “Out of six cities five will be saved and only one will perish.” 라고 주석함으로써 선교의 왕성한 상태(Prosperous and flourishing condition)를 설명하면서 장만성 같은 이방도시도 복음의 선교에 의해 구원받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The metaphorical expression)하였다고 칼빈은 말한다.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를 칼빈은 “speaking with the lip of Canaan” 이라고 했고, 방언(συνεκοχικως)은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taking a part for the whole)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내용은 신앙고백이라고 했다.⁷⁹⁾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언어는 하나밖에 없으며 그것이 가나안 방언이라고 했고 온 세계 각처에서 이 가나안 방언이 전파되어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이사야 19장 24, 25절을 주석함에 있어서 “Isaiah concludes the promise which he had briefly glanced at, that the Egyptians and Assyrians, as well as Israel, shall be blessed.”라고 하므로써 복음 선교의 결과 에집트와 앗수르와 같은 이방민족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과

78) John Calvin, *Commentary on Isaiah*, p. 391.

79) *Ibid.*, p. 69. “By the word lip he means the tongue, ...for by the tongue he metaphorically denotes confession.”

함께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약속이 이뤄지는 것(The promise becomes fulfillment)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사야서 2장 2절 주석에서 칼빈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이미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말일에 도착한 것”(We have actually arrived at the end of age)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아래의 교회의 상태는 보다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여 교회로 이방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마치 바다에서 배가 파선하여 물위에 떠다니던 사람들이 항구로 밀려들어와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⁸⁰⁾ 이와 같이 말세에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옴(spontaneous coming heathens)이 이사야서에 나타난 선교사상의 특징이라고 말한 화란의 요하네스 바빙크(J. Bavinck)는 철저한 칼빈주의 선교신학자로 알려져 있다.⁸¹⁾ “만방이 그리로 모여 들 것이라”를 칼빈은 “et fluent ad eum omnes gentes”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하면 “and all nations shall flow unto it”가 되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앞으로 교회확장의 선교시대가 되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향하여 물 흐르듯 교회로 모여들 것”을 내다보았다.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로 나아온다”는 선교적 비전에 넘치는 성경주석이다.

이와 같은 곳이 칼빈의 **이사야 주석**에 몇군데 더 보인다. 45장 6절의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나 밖에 다른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는 부분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한민족에서 다른 민족으로 차츰 차츰 전파되어서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라고 했다.

This was not indeed immediately fulfilled; for, although the fame of that victory was spread far and wide, yet few understood that the

80) John Calvin, *Ibid.*, pp. 89-93. (2:2)

81) J. H. Bavinck,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1), p. 42 참조.

God of Israel was the author of it; but it was immediately made known to the neighbors, and was communicated by one nation to another, till the report of it was spread throughout the world.⁸²⁾

또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부분을 칼빈은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해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사도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⁸³⁾ 하면서 이방인 선교로 나갈 때 그 근거를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약교회가 이방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했다고 칼빈은 주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사야 49장 18절에서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라든지 49장 22절의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초를 세울 것이라”라든지 49장 23절의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는 네 유모가 될 것이며”라든지 54장 2절의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에서는 “He continues his argument under other metaphors, and promises that the Lord will not only restore his church, but will bestow upon her a condition far more excellent.”라고 해석하고 있는 칼빈의 선교 신학사상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칼빈이 종교개혁에만 급급해서 선교에는 무관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칼빈의 신학에는 교회의 복구(restore) 혹은 개혁(reformation)에만 중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칼빈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82) John Calvin, *Ibid.*, p. 402, (45:6)

83) 행 13:46.

다. 칼빈은 이사야 54장 2절의 주해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복구뿐만 아니라 교회가 복음선교에 의해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어른 상태로 크게 성장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일이 성취(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교적 비전에서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칼빈은 실로 놀라운 선교사상의 선구자요 선교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The conception was concealed, as it were, in the mother's womb, and no outward appearance of it could be seen; but afterwards the people were increased, and after the firth the church grew from infancy to manhood, till the Gospel was preached. This was the actual youth of the church; and the next follows the age of manhood, down to Christ's last coming, when all things shall be fully accomplished.⁸⁴⁾

또 이사야 55장 5절에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을 말하며 56장 8절에서 “이미 모은 본 백성외에 또 모아”라는 말씀의 해석도 선교적 차원에서 했고 또 60장 1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명령도 어둠의 땅 선교지에 복음선교의 빛을 비출 것과 65장 1절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라는 말씀의 주해에서도 선교의 사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칼빈이 **창세기 주석**을 내놓은 것은 1554년인데 라틴어판과 불어판이 같은 해에 나왔다.⁸⁵⁾ 칼빈은 **창세기 주석**을 1554년 3월에 죽은 삭소니의 선거제후인 요한 프리드릭(Johann Friedrich)의 세 아들들에

84) John Calvin, *Ibid.*, pp. 135-6. (54:2)

게 헌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중요시할 것을 당부했다.⁸⁶⁾ 이들은 비록 예배의식에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열망은 대단했다. 루터교 신학자들의 조언에 따라 왕자들은 칼빈의 주석헌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칼빈은 주석 여러 곳에서 성찬에 대해서 루터와 다른 견해를 가지며 루터를 비판했기 때문이다.⁸⁷⁾ 칼빈은 창세기 3:15이나 12:1-3에서도 많은 선교적 의미를 내포하는 해석을 썼다.⁸⁸⁾

칼빈의 **시편주석**은 1557년에 라틴판과 불어판이 나왔는데 불어판 번역이 히브리어에 가깝게 접근하지 못해서 1561년 두 번째의 불어판이 다시 나왔다.⁸⁹⁾ 칼빈이 시편주석을 시작한 것은 1552년부터이고,

85) de Greef, *Ibid.*, p. 104.

Latin: *In primum Mosis librum, qui Genesis vulgo dicitur, Commentarius Iohannis Calvini* (Geneva, 1554—CO 23:1-622); French: *Commentaire de M. Jean Calvin sur le premier livre de Moysse dit Genèse* (Geneva, 1554). See also Lewis F. Lupton, "Calvin's Commentary on Genesis," in *idem, A History of the Geneva Bible, Vision of God* (London, 1973), 107-17; Richard Stauffer, "L'Exégèse de Genèse I, 1-3 chez Luther et Calvin," in *Centre d'études des religions du livre, In principio:*

Interprétations des premiers versets de la Genèse(Paris, 1973), 245-66 (this article is also found in Richard Stauffer, *Interprètes de la Bible: Etudes sur les réformateurs du XVIe siècle*[Paris, 1980], 59-85); Claude-Gilbert Dubois, "Jean Calvin, commentaires sur le premier livre de Moysse," in *idem, La Conception de l'histoire en France au XVIe siècle*(1560-1610)(Paris, 1977), 307-15.

86) CO XV: 196-201.

87) CO XV: 260-61. cf. Chancellor Francis Burckhardt가 칼빈에게 보낸 편지 내용 참조.

88) John Calvin, *Commentary upon the Book of Genesis*, p. 167. pp. 341-9.

89) de Greef, *Ibid.*, p. 105.

Latin: *In librum Psalmorum, Iohannis Calvini Commentarius* (Geneva, 1557—CO 31 and 32); French: *Le Livre des Pseaumes exposé par Iehan Calvin* (Geneva, 1558); *Commentaires de M. Jean Calvin sur le livre des Pseaumes. Ceste traduction est tellement revue et si fidèlement conferée sur le latin, qu'on le peut juger estre nouvelle* (Geneva, 1561). See also S. H. Russell, "Calvin and the Messianic Interpretation of the Psalms," *SJTh* 21(1968): 37-47; John Robert Walchenbach, *The Influence of David and the Psalms on the Life and Thought of John Calvin* (Pittsburgh, 1969); Hans-Joachim Kraus, "Vom Leben und Tod in den Psalmen: Eine Studie zu

1555년부터 1559년까지는 ‘회중’ (Congrégation)이라고 하는 주말 성경 연구회에서 시편을 연구토론했다. 또한 칼빈은 주일 오후 설교에서는 시편을 자주 강해 하였다. 이러한 강의 초안과 설교를 주석으로 만들어 내라는 친구들의 권유에 의하여 **시편주석**이 나왔다.⁹⁰⁾ 시편 67편을 해석하면서 “이 시편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예언”이라고 전제하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부터 시작하여 주변국가와 땅끝까지 축복이 미쳐서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하셔서 이방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고자 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서 구약에서의 선교의 대헌장(The Magna Charter of the Old Testament)이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러한 선교적 관점에서 시편을 해석하고 있다.

칼빈은 **요나서 주석**을 통해서 “파송”의 의미를 포함한 선교사상을 해설하고 있다. 요나는 이방민족에게 보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강권적으로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해 나가는 선교사상을 바라볼 수가 있다.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Utpossideant reliquias Edom et omnes gentes, super quas invocatum est nomen meum”라고 하여 “에돔 가운데도 남은자의 수에 들어갈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주석하면서 전투적 교회와 선교의 연결을 암시하고 있다.⁹¹⁾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왕국(The Kingdom of Christ)은 필수적으로 전투적 성격을 가지며 공격적이고 정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Calvins Psalmenkommentar,” in idem, *Biblich-theologische Aufsätze* (Neukirchen, 1972), 258-77; and Willem Balke, “Calvijn over de geschapen werkelijkheid in zijn Psalmencommentaar,” in *Willem Balke et al., eds., Wegen en gestalten in het gereformeerd protestantisme: Een bundel studies over de geschiedenis van het gereformeerd protestantisme aangeboden aan Prof. Dr. S. van der Linde* (Amsterdam, 1976), 89-103.

90) *Ibid.*

91) John Calvin, *Commentaries on Amos*, p. 407. (9:12)

있다(It's essentially militant and aggressive and all conquering)고 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Regnum Christi)는 교회로 하여금 모든 인류가 복음의 영향력 아래 들어오도록 강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선교이다. 그의 주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의 선교는 구원론적 성격이 강하고 또한 교회중심적 선교이며 메세지 선포적 선교이다.

현대선교 신학에서는 선교의 목표를 3층 집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피터 와그너(Peter C. Wagner)는 Presence(현존), Proclamation(선포), 그리고 Persuasion(설득)이라는 세가지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현대선교를 3P라는 3층집이라고 하였다. 비기독교 세계에 기독교 신자가 가서 살게되면 '현존의 선교'라는 1층집이 세워진 셈이다. 거기에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면 2층집이 올라간 셈이며 '설득'이 이루어져서 믿게 되면 3층집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맥가브란 - 와그너의 교회성장 학파(CHurch Growth School)에서는 선교의 궁극적 목표를 '현존'에서부터 '선포'를 거쳐서 '설득'을 통한 개종까지의 3층 집을 짓는데 두고, 성령의 역사 아래서 좋은 전략을 통한 설득은 많은 신자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참여를 개인 영혼구원 보다더 우선시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에서는 선교 대신에 증거(witness)라는 용어를 대치하고 말씀 선포에의 선교를 포기하고 정치 및 사회 참여의 행동신학으로 나아간다. 이들은 현존의 선교신학 즉 선교할 현장에 가서 말없이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증거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선교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비기독교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알리는 것이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모든 개혁주의 선교학자들은 이러한 칼빈의 선교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어떤 학자는 요한칼빈이야말로 선교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학자들은 칼빈은 실제 선교에 있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⁹²⁾ 이점에 대해서 칼 스티븐스(Carl D. Stevens)는 칼빈에게 선교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을 논하기 전에 먼저 그의 선교사상에 영향을 미친 교회론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⁹³⁾

그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필자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칼빈의 구원론을 검토하고 그의 예정론이 선교에 저해적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칼빈에게 있어서의 선교는 어디까지나 구원론적 기반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세계에 전파되고 땅끝까지 구원이 이르러야 한다는 사상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빈은 그의 삶 자체가 선교적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학공부를 하기 위해 오르레앙에 간 칼빈은 당시 프랑스 왕에 의해서 밀란에 있는 대학에 법학 교수로 임명받은 당대의 석학 알치아띠에게 사사 받기 위해 부르쥬(Bourges)로 갔다. 그곳에서 헬라이어 교수인 볼마르(Wolmar)를 만났고 그로부터 헬라이어와 함께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배웠다. 칼빈의 가슴속에는 복음전파의 불길이 타고 있었다. 그는 이집저집으로 찾아다니며 전도하면서 설교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설교자의 열정적 설교에 매료되어 예수를 믿었다고 했다.⁹⁴⁾

그리고 그가 3년간 스트라스부룩에서 목회하는 동안도 선교사 사

92) Carl D. Stevens, *Calvin's Corporate Idea of Mission*, (Philadelphia: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1992), p. 227.

93) *Ibid.*

역을 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한국교회가 해외에 있는 한인교포들의 목회사역을 돌보기 위해서 파송하는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대우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칼빈이 스투라스부룩에서 프랑스로부터 넘어오는 수많은 피난민들을 돌보아온 사역은 선교사로서의 사역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티븐스(Stevens)에 의하면 칼빈이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역, 제네바에서 활동한 사역을 모두 칼빈의 선교활동으로 볼 때, 칼빈은 결코 선교의 신학적 기초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역으로서의 선교의 활동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⁹⁵⁾고 했다. 그리고 브라질에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는 현대적 파송선교의 개념에서의 선교활동을 칼빈이 실제로 행했다고 볼 수 있다. 칼빈은 유럽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복구하는 일과 함께 선교의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교회를 확장하는 일도 병행한 것이다.⁹⁶⁾ 1577년 제네바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던 22살의 장드레리(Jean de Léry)가 쓴 *Journal de Bord de Jean de Léry en la Terre de Brésil*에 의하면 그는 평소부터 선교에 참여해 보기위한 열망이 있었는데 제네바 교회에서 파송하는 브라질선교에 동참해서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⁹⁷⁾

제네바 교회는 니콜라 듀란드 빌레가그논(Nicolas Durand de Vilegagnon)과 수행자 일행을 브라질에 파송하였다. 리오데자네이로에 도착 즉시 빌레가그논은 칼빈에게 목사와 신자를 더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고 칼빈은 제네바 교회에서 요구대로 2차 파송을 실시했다. 그러나 인솔자 빌레가그논은 브라질 총독의 압력에 못이겨 로마교로

94) Timothy Tow, *A Glimpse of The Life and Works of John Calvin*, 임성호 역,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 26.

95) Stevens, Carl D. *op. cit.*, p. 165, p. 188.

96) *Ibid.*, p. 202.

97) *Ibid.*, p. 203.

복귀하였고 나머지 인원은 순교를 당했다. 그중 레리(Lery)가 구사일생으로 제네바에 돌아와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개혁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후일에 레리가 저술한 일명 아메리카라고도 불리는 브라질까지의 항해 역사(History of a voyage to the Land of Brazil, otherwise called America)에 의해서 칼빈의 브라질 선교의 사실이 알려졌다.

칼빈의 주석이야말로 성경중심의 해석 곧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되 그 속에는 선교의 열정과 선교 사상의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기 전에 이미 성경번역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 성경번역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며 또한 필수적 과정이다. 칼빈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중세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Vulgate) 라틴어 성경을 쓰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역 투성이요 신학적으로 아주 잘못된 이런 성경을 쓰는데서 부패하고 타락된 교회가 나온다”고 했다. 그는 성경을 번역하는데 관여했고 성경을 강의한 결과가 정리되어서 성경을 주석이 되었는데 그의 주석 가운데 수많은 곳에 선교사상으로 충일함을 이미 본론에서 검토하였다.

칼빈은 선택교리를 말하면서 선택의 증거들이 선행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칼빈의 선교사상도 목회현장에서 혹은 제네바(Geneva)시 정치에의 참여, 선교사의 파송, 유럽의 왕들과 통치지도자들에게 성경주석과 **기독교 강요**를 헌증하면서 “종교개혁에 동참하여 참되고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것을 촉구”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곧 칼빈이 할 수 있었던 최선책의 선교였던 것이다.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타문화권 선교에 불을 붙였고, 칼빈의 선교사상에서 청교도들의 인디언 선교, 그리고 미국의 해외선교 운동으로 연결되어져 온 역사적 사실을 분석 검토해보면 그것은 곧 칼빈의 위대한 선교사상을 더욱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칼빈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교회개혁 운동과 함께 선교활동을 전개해 나간 것은 당시 그가 처한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다. 우리도 칼빈의 종교개혁정신과 선교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교회의 개혁과 세계선교의 사명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lle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Philadelphia: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Press, 1936.
- Barth, P. & Niesel, W. (ed.)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Monachii in Aedibus: Chriten Kaiser, 1952(II), 1957(III), 1959(IV), 1962(V)*.
- Battles, Ford Lewis. *Analysis of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0.
- Battles, Ford Lewis, (tr.) *Institution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of Nyon*. Atlanta: John Knox Press, 1975.
- Baum, G. & Rouss, E.G.E. ed.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Corpus Reformatorum) Brunswigae: Schwestschke et Filium, 1863-1900.
- Beever, R. Pierce. "The Genevan Mission to Brazil" in Bratt, John., Ed. *The Heritag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73.
- Berg, Johannes Van den. "Calvin's Missionary Message". *The Evangelical Quarterly* 22. 1950: 174-187.
- Beveridge, Henry. (tr.)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by John Calvin*.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5-46.
- John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s)*. GRR: Wm, Eerdmans, 1972.
- Tracts of the Antedote to the Council of Trent*.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944-51.
- Tracts of the Reformation of the Church*.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944-51.

- Bratt, John H. *The Life and Teachings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58.
- Burkhart, John E. *Kingdom, Church, and Baptism: The Significance of the Doctrine of the Church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Ph. D. Dis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59.
- Calvin, Jean. *A Compend of the Institute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by Hugh Thomson Kerr.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1939.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Various Translators (45 Vols). GRR: Wm. Eerdmans, 1948.
- Chaney, Charles L. *The Birth of Missions in America*. Pasadena: Wm. Carey Library, 1976.
- Dankbaar, Wilhelm F. "Het Apostolaat bij Calvijn" *Nederlands Theologisch Tijdschrift* 4 (1950): 177-192.
Calvin: Sein Weg und Sein Werk. Groningen: Neukirchener Verlag, 1959.
- de Greef, Wulfert. *The Writings of John Calvin*. GRR: Baker Books, 1993.
- Doumergue, Emil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7 Vols)*. Lausanne and Paris: [n.n.], 1899-1927.
- Grob, Rudolf. *Briefe ueber Calvin*. Zürich: [n.n.], 1918.
Die Praedestinationslehre Calvins und ihre Bedeutung für unsere Zeit, (Lecture delivered at the Cathedral Church of Zurich, May 9, 1917. (MS.)
- Hesselink, I. John. *Calvin's Concept of the Law*. Allison Park: Pickwick Publications, 1992.
Calvin's First Catechism.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 Press, 1997.
- Hughes, P. E. "John Calvin: Director of Missions", *CAF*. Grand Rapids: Henry Meeter Center, [n.d.]
- LeféPioneer of Ecclesiastical Renewal in France*. Grand Rapids: Eerdmans, 1984.
- Kromminga, John. *John Calvin: The Life and Significance of the Genevan Reformer*.
- Léry, Jean de. *History of a Voyage to the Land of Brazil, Otherwise Called America*. Tr. by Whatley, Janet,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 McKim, Donald K. "Calvin's View of Scripture" in *Readings in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pp. 43-68.
- Parker, T. H. L.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6.
- Calvin's Preaching*.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 Portrait of Calvin*. London: SCM, 1910,
- Pückett, David L.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KY: Westminster/Knox Press, 1995.
- Stauffer, Richard. *Calvin et Sermon*. 박건택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술: 성서연구사, 1994.
- Torrance D. W. and Torrance T. F. (Ed.). *Calvin's Commentaries (12 Vols)*. Edinburgh : The St. Andrew Press, 1959-1972.
- Tylenda, Joseph N. "Calvin's First Reformed Sermon? Nicholas Cop's Discourse- 1 November, 1533",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38 (1975/6), pp. 300-318.

- Warneck, Gustav. *Outline of A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ed.) George Robson. Translated by J. Mitchell and C.
Macleroy. Edinburgh: Morrison & Gibbs, 1901.
- Wendel, François.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Grand Rapids: Baker Books, 1963.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Durham: Ladyrinth Press, 1987.
- Zahn, Adolph. *Studien über Johannes Calvin*. Gütersloh: [n.n.], 1894.
- Zwemer, Samuel M. "Calvin and the Missionary Enterprise".
Theology Today 8. 1950: 206-216.